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식조사에 나타난
학교 영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在 英

2007年 8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식조사에 나타난 학교 영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指導教授 梁 彰 容

李 在 英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5月

李在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국문초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식조사에 나타난 학교 영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李在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彰 容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학교현장에 활용하는 EPIK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영어 활용에 있어 학습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고 정의적 여과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듣고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였고, 이들은 소수학교에 한정 배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 해소, 외국인 교사에 의한 수업 진행의 참신함, 색다른 수업 방식 등 수업외향적인 면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영어교육에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상당수의 초, 중, 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평균 배치비율은 전체학교의 61%에 이르고 있다.

EPIK프로그램 시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학교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실제 현장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개선점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우리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학교영어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수 있는 실제적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문 중심으로 살펴보자. 설문지에 다뤄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 된 후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받는 각종 정보들은 학교 현장 적응에 유용한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 보았다. 둘째,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실제적이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규모, 시수 및 수업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넷째,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수업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았다. 다섯째, 협동수업에 대한 견해와 실시 여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제주 영어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교현장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현행보다 연장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교 현장 적응시간을 단축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이고 자세하며 개인별 맞춤형 정보로 채워져야 한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학교현장 적응에 대해서는 수업목표, 학생 관련 정보, 수업 운영 방식, 수업 운영 과정, 수업 평가, 학교 행사 참여 범위, 학교와 마을의 지리적·역사적 정보 등에 관하여 명쾌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또는 교육청 주관의 워크샵 운영이 요청되었다. 특히, 수업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협동수업 실시 방안에 관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교적응 및 수업운영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수업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앞서 한국어 강좌, 한국 문화 강좌 개설 등 우리 문화 관련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수업태도,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및 우리 영어교육 발전에 참고할 만한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영어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보조교사’ 라고만 인식하지 말고 교육의 핵심으로 인정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면 우리 영어교육이 한 층 나아질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목 차

국문초록	i
표 목 차	v
I. 서 론	1
II.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의 현황	5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도입	5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6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7
III.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의사소통 협력수업 모형	10
1. 의사소통과 원어민 영어교육	10
2. 학습모형의 이해	11
3. 협동수업	12
3.1 협동수업의 정의	12
3.2 협동수업의 유형	14
IV.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과 시사점	16
1. 자료수집	16
2. 설문지 구성	17
3. 설문 자료 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18
3.1 오리엔테이션 :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19
3.2 교육행정기관 :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21
3.3 학급규모 및 시수: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23
3.4 수업태도: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28

3.5 제주 영어교육: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30
3.6 협동수업: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32
3.7 영어 수업: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37
3.8 학생 태도 :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43
3.9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	50
3.10 협동수업관련(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52
3.11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53
 V. 결론 및 제언	 56
 참 고 문 헌	 60
 <부록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65
<부록 2>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얻고 싶어 하는 정보	74
<부록 3> 협동수업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견해	77
<부록 4>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조언	79

표 목 차

<표 1> 학교 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도별 현황	7
<표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등급별 및 검입학교 근무 현황	8
<표 3> 협동학습, 경쟁학습 그리고 개별학습의 구조적 특징	12
<표 4> 질문지 구성 및 내용	18
<표 5>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 받은 정보 관련	19
<표 6> 적절한 오리엔테이션 기간	19
<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한 수업정보 관련	22
<표 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담당 학급 당 학생 수	23
<표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24
<표 10> 주당 1시간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미치는 영향	24
<표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하는 주당 적정 수업시수	24
<표 12> 수업 진행 시 이중 언어(bilingual) 사용의 필요성	25
<표 13>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 분석-학습동기 측면	28
<표 14> 제주영어교육의 발전 가능성-다양한 수업 필요성	30
<표 15>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31
<표 1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협동수업 교육 경험 유무	32
<표 1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수업 스타일 선호도	33
<표 18> 실제 수업 전 한국인 교사와 협의 상황 1	33
<표 19> 실제 수업 전 한국인 교사와 협의 상황 2	34
<표 20> 수업 계획서	37
<표 21> 수업 자료 제작의 주체	37
<표 22> 수업 교재로 학교 영어교과서 활용 여부	38
<표 23> 수업 교재로 학교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38
<표 24>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39
<표 2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중점 수업 영역	40
<표 26> 수업 평가에 대한 반응	40

<표 27> 한국사회의 일상 영어 사용 준비 상태	41
<표 28>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언어적인 면	44
<표 29>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문화적인 면	45
<표 30>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심리적인 면	46
<표 31>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문화 및 한국어 관련 사항	50
<표 32>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학교 및 학생 관련 사항	50
<표 33>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수업운영 관련 사항	51
<표 34> 협동수업에 대한 견해-상호협조	52
<표 35> 협동수업에 대한 견해-애로사항	52
<표 36>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	53



I. 서론

영어 열풍이 지구촌에 불어 닥친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영어라는 단 하나의 언어가 세계 공용어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정받는 것도 역사상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Graddol(1997)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세계인구 65억 명 중 4분의 1정도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인구는 4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²⁾. 제1언어로 쓰는 사람이 3억에서 5억 명,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구가 7억 5000만 명에 이르며 조만간 영어 사용자가 세계인구의 3분의 1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영어 교수학습방법이 종래의 어휘암기, 문법학습위주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사용에 중점을 두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력과 표현력을 배양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최근의 영어교육의 방향이 듣고 말하기 위주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유창성과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³⁾.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에 전국 50개 초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2,900개)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⁴⁾.

2) David Graddol(2007.4.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arly one-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soon be studying English. By the most common estimates, 400 million people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another 300 million to 500 million as a fluent second language, and perhaps 750 million as a foreign language.

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원자격검정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58호 전문 개정, 200.5.16 대통령령 제16812호 일부 개정) 제3조(자격중의 수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원어민을 정식 교사로 호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정식 교사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들은 한국인 영어교사를 보조하는 영어보조교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EPIK 실무안내서, 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81.0%, 중학생의 80.0%, 고등학생의 64.8%가 영어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비중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고 영어교육 성취 수준이 사교육에 비해 낮은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최대한 이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수업 내용 향상에 온갖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영어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채용 즉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우리의 학교 현장에 아무런 문제없이 적응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조직 내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화상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Albert(1999)는 다국적 조직 내의 타문화 적응훈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⁶⁾.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문화가 개인의 행동, 지각, 느낌, 가치 그리고 행동의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의 규범, 규칙, 과정이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국가적 문화, 조직적 문화 그리고 개인 한 사람만의 고유문화가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문화가 동등한 수준이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경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훈련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

4)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1), 초등 영어교육 10년 성과 분석 연구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2005.5)

5) 한국일보(2007.3.23), 2006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6) R. D. Albert(1999)은 다국적 조직내의 국제화 교육이 부족한 이유로 문화차이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 부족, 이문화 적응 훈련에 대한 지식 부족을 들었다.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이나 문화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지식보다는 문화적 배경지식의 이해이다. 문화의 이해과정에 있어 문화적 배경 지식 자체보다는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백신정, 2003)

Richard(1988)는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이상이 구두 및 문자언어를 포함하는 언어적 기호(verbal symbol) 또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비언어적 기호(nonverbal symbol)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영어학습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 국제화, 다문화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과 접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어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국제 이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5년부터 영어 상용 국가의 원어민을 채용하여 일선 학교, 연수원 및 시·도 교육청에서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다⁷⁾. 1997년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영어과목이 정규교과로 도입되어 영어교육의 시기를 앞당겨 놓았다. 이와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영어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동양식, 반응양식 등을 영어로 표현하고 실제 생활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과 능력을 키워나간다. 결국 학습자들은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어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⁸⁾.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청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직접 교육 현장에 투입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초청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교육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하는 실제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원어민 영어보

7) 교육인적자원부, 200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 실무안내서」

8) Ryle(1949)은 인간의 지식을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Knowing what*, 후자는 *Knowing how*로 설명하고 있다. 선언적 지식은 사실에 관한 지식이어서 언어로 기술할 수 있고, 절차적 지식은 단지 개인의 행동으로부터만 추론해 낼 수 있는 지식이다.

조교사들의 의견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의견이 영어교육에 반영되기 보다는 우리의 교육환경,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문화 기준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교육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육행정가 사이에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도 단순 보조교사의 수준을 넘어 영어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실제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영어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의견 및 제안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육의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현황 분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활용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 전략과 태도의 분석, 더 나아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식 조사 설문을 통해 우리 영어교육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의 현황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도입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교육은 120여 년 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의 전신인 관립 영어학교에서 이루어졌고 최초의 원어민 교사는 영국인이었다. 당시 교과목인 지리와 산술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해방 후 1966년부터 1980년 까지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중등학교 수업, 교사연수, 대학 강의 등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초석을 다졌다(Ross, 1997). 그 후 10여 년 간의 과도기를 거쳐 199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등 6개국 출신의 영어원어민을 채용하여 보조교사로 활용해오고 있다⁹⁾. 이는 영어교육을 듣기와 말하기의 회화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영어 교사에 대한 회화 연수, 영어 교재 개발 및 영어 교수 기법의 개선·보급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공헌함과 동시에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각급학교 및 연수기관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외국어교육에 원어민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청 사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등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참여하는 원어민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학교를 포함하여 공·사립 교육기관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영어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English Program In Korea : EPIK)은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 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 국제이해교육을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 실무안내서, 200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서의 활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EPIK프로그램과 한미교육위원단의 Fulbright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EPIK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각각 주관이 되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Fulbright프로그램은 한미교육위원단이 미국 내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한국에서 6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그들이 근무할 학교까지도 지정해서 각시·도교육청으로 통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제외하고, 학교 급으로는 초등학교를 제외시키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초, 중등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얻게 될 장점은 학생들이 목표언어에 쉽게 노출되어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과의 접촉 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덜게 되어 말하기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정길정 외, 1999)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현황

1992년에 한미교육위원단의 지원으로 30여 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중등교육 현장에 배치되었다¹⁰⁾. 2005년에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 수가 1,179명에 이르러 원어민의 영어교육 참여 비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학교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1995년에 59명, 97년에 856명, 98년에 265명 그리고 최근 2005년에는 1,179명까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학교 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0) 한미교육위원단 프로그램: Fulbright 프로그램 또는 English Teaching Assistant(ETA)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표 1> 학교 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도별 현황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인원	59	90	856	265	167	137	131	179	273	866	1,179	4,172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실적]

이러한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학교 현장 배치는 아직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학교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과 교육정책 및 수업내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염문실(1997:304)은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훈련 부족,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불안감 가중, 직장과 주거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학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기도 어렵지만 채용한 보조교사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 애초에 설정했던 EPIK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이 그 자체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어수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의 영어학습과 영어사용에 대한 흥미 유발, 생활영어 능력 배양, 세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의 목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원연수기관과 각급학교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EPIK 프로그램으로 제주 영어교육에 참여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는 2005년도에 38명, 2006년에 53명, 2007년에는 69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미교육위원단을 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제2외국어를 담당하는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를 포함해 2007년 3월 현재 9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회화 지도는 물론 영어교사들을 위한 각종 연수, 영어교육에 필요한 자료 개발·보급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수업시수는 주당 22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2개 이상의 학교에 겸임근무 하도록 지정해 놓고 있다.

<표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등급별 및 겸임학교 근무 현황

	근무인원	1등급	2등급	3등급
한 개 학교	29	11	13	5
두 개 학교	24	11	9	4
세 개 학교	13	3	4	6
네 개 학교	3	1		2

전체 69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한 학교 또는 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29명, 두 학교 또는 두 기관 근무가 24명, 세 학교 근무가 13명 그리고 네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도 3명으로, 69명이 담당하는 학교나 기관이 128개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 이다.

2006년도 시·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계획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고용등급별 자격 기준은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1+ 등급’은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이고, ‘1등급’은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ESO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2등급’은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TOEFL/TEFL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되며, ‘3등급’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등급에 따른 근무지 배치를 보면 1등급 교사인 경우 1학교에 11명, 2학교에 11명, 3학교에 3명, 4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2등급 교사는 1학교 13명, 2학교 9명, 3학교 4명, 3등급 교사는 1학교 5명, 2학교 4명, 3학교 6명, 4학교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적어도 15번 이상 반복 수업하여야 하며 여러 학교를 순회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등학생 수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의 대비는 2005년 전체 학생 수 100,634명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8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2,648명의 비율이었다. 2006년에는 전체 학생 수 102,086명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3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 1,926명의 비율이다¹¹⁾. 2006년 11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비율은 초등학교 48.6%(105개교 중 51개교), 중학교의 92.8%(42개교 중 39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56.7%(30개교 중 17개교)에 이르고 있다. 평균 배치비율은 61%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수요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제한되어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의 실제적 신장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원어민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1) 참고로 2007년의 경우 전체학생 수 102,799명을 69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1,490명의 비율로 나타나 최근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학교 현장 배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Ⅲ.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의사소통 협력수업 모형

1. 의사소통과 원어민 영어교육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 및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상황에서 영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교수 학습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90년대 초 우리의 교육현장에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수법이 도입되면서, 영어수업 현장에서 종래의 문법과 독해 중심이 아닌,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영어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함께 수업에 임하는 협력수업 모형을 취하고 있다. 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수업(team teaching) 형태의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협동수업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현성환(199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력수업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연구대상 학생의 76%가 협력수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원했으며, 73%가 협력수업을 통해서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발화내용을 90%이상 이해하는 학생은 6%에 지나지 않아 한국인 영어교사의 보충설명과 보조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협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수업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도 불구하고 협동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고 충분한

자료제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동수업을 담당할 교사연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담당하는 한국인 영어교사에 따라 제각각 수업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부합하는 수업모형과 교재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의 EFL 영어교육 환경에서 영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영어수업 진행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학습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낮추는 반면 자신감을 갖게 되며, 자연스러운 발음을 접촉함으로써 말하기와 듣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이현규, 2000). 그러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어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 관심사, 선호영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모형을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 학습모형의 이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는 수업의 형태와 질을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되는 협동수업은 직소학습(Jig-saw), 프로젝트학습(Project)과 더불어 협력학습에 포함되며, 협력학습은 경쟁학습이나 개별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협동수업에서 구성원들은 소집단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모여서 학습할 내용을 토론하고 계획하며, 학습할 내용을 서로 분담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수행해야 할 몫을 부여하여 진행한다. 궁극적으로 학습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학습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주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수업방법이다. 협동수업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목표 설정에서부터 평가에 따른 보상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여 집단구성원 간에 학습활동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윤근호, 2004). Johnson & Johnson(1999)은 연구를 통해 협동학습, 경쟁학습 그리고 개별학습에 대한 구조적 특징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협동학습, 경쟁학습 그리고 개별학습의 구조적 특징

구분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교수활동 형태	고급 사고력 중심의 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교수함.	학습해야 될 내용은 분명하며 경쟁규칙이 분명히 제시됨.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과제가 분명하며, 해야 할 행동도 세분화 됨.
학습목표 중요성 인식	학습목표는 각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각 학생은 집단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단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가짐.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언젠가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함.
학생의 활동	각 학생은 다른 학생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며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책임, 집단에 기여, 과제분담, 구성원의 다양성을 이용함	각 학생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가지며, 자신의 학습활동을 즐기고, 경쟁자의 진보상태를 평가하며, 능력, 기술, 지식 등을 비교함.	각 학생은 다른 학생에 의해 간섭받지 않으며, 과제 완성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 스스로 노력, 과제수행의 질을 평가함.
도움의 원천	동료학생	교사	개별 학습자 또는 교사

3. 협동수업

3.1 협동수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EPIK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협동수업이 권장되고 있다(정길정·연준흠, 1997; 배두분, 1997). 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몇 가지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둘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문학과 역사 같은 과목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안목을 주기 위하여 팀(team)이 되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조명원·이홍수, 1993)

나. 교직원과 그들에게 배당된 학생을 그 속에 포함하는 하나의 수업조직이며, 이 조직에서 같이 일하는 둘 이상의 교사에게 동일한 학생집단의 수업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박양숙, 1978)

다. 어떤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전문 영역으로 구성된 경우에 영역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교사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안목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해서 가르치는 수업 (정길정·연준흠, 1997)

라. 둘 이상의 교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각 집단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수업 형태로, 영어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팀을 이루어 공동 연구하여 학습 내용과 지도 방법을 면밀히 계획하고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직접 실행하여 평가하는 방법(류수진, 2004)

협동수업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학교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 준비에서부터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학생에게 투입할 자료를 공동 제작하고 하나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수업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성환(1988:15-16)은 협동수업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실천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교재의 재구성과 지도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활발한 학생중심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성적향상이 가능하다.

셋째, 학생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간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고 수업의 폭이 넓어져 수용성이 증가된다.

반면에, 협동수업의 진행에 어려움도 있다. 협동수업은 과제중심, 학생활동중심 수업이므로 교실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활동지시문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지 않으면 혼돈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만큼 협동수업 실시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김덕경, 2005).

3.2 협동수업의 유형

최근 영어교육 환경의 두드러진 변화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쉽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뿐만 아니라 영어교사에게도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배두본(1997)은 두 교사의 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협동수업을 수업분담(assistant solo-teaching), 공동수업(co-teaching), 부분 협동수업(partial team teaching), 특활지도관리(extra 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수업분담 유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할 때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학생역할로 학생들과 함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인 영어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습 활동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이다.

둘째, 공동수업 유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가 매시간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인 영어교사가 수업주도권을 갖고 수업을 할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학생의 대화상대자 역할만 수행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시 한국인 영어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부분 협동수업 유형에서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여 언어교수보다 학생들과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활동을 한다.

넷째, 특활지도관리 유형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영어 회화반, 영어 웅변반, 영어 연극반 등의 특별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학생 수와 시간 수, 장소를 조절할 수 있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양희(2003)는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협동수업의 유형을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업참여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모두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학생들은 최대한 영어에 노출될 수 있고 영어몰입의 경험을 하게 된다. 둘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말을 한국인 교사가 그대로 번역해 주는 유형으로 학생들이 한국인 교사의 번역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인 교사는 교실통제만 담당하는 유형으로 한국인 교사가 번역을 해 주지는 않고 학생들을 영어환경에 몰두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둔다.

넷째, 원어민 교사는 수업을 하고 한국인 교사는 교실 뒤에 서 있기만 하고 수업에 관여하지 않는 유형으로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수업에 참여하나 차츰 참여도가 낮아지게 된다.

정길정(1997)은 원어민 영어 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 협동수업 현황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69.9%에 해당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자신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협력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57%의 한국인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협동수업의 진행을 연구한 김신혜(2005)는 협동수업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52.7%의 한국인 영어교사가 자신의 영어 능력을 상급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협동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동수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협동수업 운영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협동수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한국인 영어교사의 협동수업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교사에게는 협동수업 시 각자의 역할과 교수방법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영어의 중요성, 영어듣기의 어려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말하기 속도 조절 필요성 등에 관하여 한국인 교사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IV.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과 시사점

본 장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설문자료를 토대로 통계적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 자료수집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다음으로 설문지 구성과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계속해서, 분석과 토의를 통해 살펴 본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우리 영어 교육 방향에 대해 갖고 있는 평가적 의견을 개진해 보려고 한다.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쓰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프로그램과 Fulbright프로그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자료는 2006년 12월에 실시된 원어민 외국어보조교사 워크샵에 참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외국어보조교사 65명이 워크샵에 참가하였고 이들 중 52명이 영어보조교사였으며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응답을 한 인원은 49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개인 정보 항목에만 응답한 6명을 제외하고 43명의 설문 응답지를 주된 통계 자료로 삼았다. 다만, 개인 정보 항목에만 응답한 6명의 경우도 개인 정보 문항을 분석 할 때에는 포함 시켜 분석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각자의 성향과 질문 항목에 따라 응답을 하였고 일

부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 질문마다 응답한 총 인원수는 모두 다르며 일부 문항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응답 결과를 보여주는 각각의 표에는 질문과 기준척도가 제시되어 있고, 각 셀에는 응답 인원과 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였다.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다보니 질문에 따라 총 합계가 101% 또는 99%인 경우도 있다.

설문응답자 중 개인 정보 항목에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PIK 프로그램에 소속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34명(76%)이고, Fulbright 프로그램에 소속된 교사는 11명(24%)이다. 질문에 응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8명(58%), 여자가 20명(15%)이다. 이들의 나이별 분포는 20대가 22명(48%)으로 가장 많고, 30대 12명(26%), 40대 7명(15%) 그리고 50대 이상이 5명(11%)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제주거주 기간은 1년 이하 16명(47%), 2년 이상 5년 이하 15명(33%) 그리고 6년 이상이 5명(10%)이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어교육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크게 오리엔테이션, 교육행정 기관, 수업운영, 학생태도, 그리고 협동수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42개이나 일부 문항은 세부적으로 재 질문 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서 실제 질문은 91개의 선택적 응답문항과 3개의 서술응답, 총 9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개인 정보와 가부를 묻는 문항(13개)을 제외한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를 1로 해서 “매우 그렇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아주 높은 기대를 한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의 설문지를 완성해내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 문항 초안은 학교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영어교사 2명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

명에게 사전 제공되었고, 각 문항의 표현방식과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5회의 첨삭과정을 거친 후 설문지는 완성되었다. 전체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질문지 구성 및 내용

질문지 구성	관련 영역(내용)	영역별 문항수
인적 사항	성별, 나이, 동기 등	8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 되는 정보, 오리엔테이션 기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11
수업 운영	학급당 수업시수, 수업 시 한국어의 필요성,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등	8
수업 태도	학생들의 영어 흥미도 진단, 영어수업 개선 방안, 수업참여 정도 진단 등	13
협동 수업	협동수업에 대한 경험, 이해 정도, 실행의 어려움 진단 등	18
수업 준비	수업계획서, 교재의 적절성, 학생의 이해도 진단 등	19
EFL 환경	언어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 진단 등	16
제안	영어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1
총 : 94문항		

3. 설문 자료 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은 영

어교육 전반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직접적인 반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영어교육의 현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고 다양한 교육적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논의 전개는 설문 내용에 대한 분석 자료를 먼저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질문지의 Q1)부터 Q8)의 개인 정보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앞장에 기술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질문 Q9)부터 시작하였다. 질문 내용들 중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거나 논문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일부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1 오리엔테이션: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표 5>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 받은 정보 관련

	1	2	3	4	5
Q9-1)You recei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school you are going to work for.	18 49%	7 19%	4 11%	4 11%	4 11%
Q9-2)Your orientation program helps you to understand Korean education policy and classroom environment.	7 19%	8 22%	6 17%	7 19%	8 22%
Q9-3)Would it be helpful for your future lesson plans and preparations if you observed a class of Korean students several times during your orientation?	3 9%	2 6%	3 9%	10 29%	17 49%
Q10)To get yourself settled down in Jeju, is it desirable to have a more detailed workshop just before you start work at school?	5 12%	5 12%	8 19%	9 21%	16 37%

<표 6> 적절한 오리엔테이션 기간

week	1	2	3	4	6	7	8
Q9-4)What do you think is the appropriate length of orientation (in terms of weeks).	4 12%	12 36%	4 12%	2 6%	8 24%	1 3%	2 6%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신의 근무 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

다' 는 응답은 18명(49%), '충분히 받지 못했다' 는 7명(19%)이었으며 '어느 정도 받았다' 고 한 응답이 4명(11%), '충분히 받았다' 가 4명(11%)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이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교실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 7명(19%),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 가 8명(22%)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의 학교 방문과 수업참관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17명(49%)이 '매우 필요하다' , 10명(29%)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에 대한 워크샵이 따로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 에 9명(21%), '매우 필요하다' 에 16명(37%)이 응답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얼마동안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주일 정도가 4명(12%), 2주일 정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12명(36%)으로 가장 높았지만, 3주 이상 4명(12%), 4주 이상 2명(6%), 6주 이상 8명(24%), 7주 이상 1명(3%), 8주 이상 2명(6%) 등으로 응답하여 현재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3주 이상을 원하는 응답자들도 상당수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서술형 응답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 개설요구가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의 근본 목적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우리의 교육환경에 대한 정보 및 근무할 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위 설문에 대한 분석은 오리엔테이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근무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고(Q9-1, 1번 49%, 2번 19%), 한국의 교육정책 및 수업상황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기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학교에 대한 정보(위치, 학생 수, 남녀 공학의 여부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수업의 목표, 내용, 방식 등),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생활과 역할(학교 활동, 행사, 학교활동 참여 여부, 문화적인 활동 등)에 대한 정보

가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영어교육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환경에 대한 배경 설명은 실제로 학교 방문, 수업 참관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0%이상(Q9-3, 4번 29%, 5번 49%)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참관 과정이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충분하고 체계적인 준비과정,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과정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한시적인 계획보다는 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설문(Q9-4)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때, 51% 이상의 응답자가 오랜 기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답하였다.

덧붙여야 할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동안 수업 참관과 아울러 원어민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모의 수업, 자유로운 대화 모임 등을 통해 학생들과 접촉함으로써 우리 교육현황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미래의 선생님에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교과교육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이 지속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교육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변화도 기대해본다.

3.2 교육행정기관: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한 수업정보 관련

Does Jeju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ffer you enough information	1	2	3	4	5
Q11-1)-About teaching hours (a semester, a week, class make-up plan, etc)?	14 33%	9 21%	10 23%	5 12%	5 12%
Q11-2)-About how to test and grade (the way of grading, evaluating, etc)?	21 53%	12 30%	0 0%	3 8%	4 10%
Q11-3)-About what to teach (contents, teaching materials, the way of (co-) teaching, etc)?	19 49%	7 18%	7 18%	3 8%	3 8%
Q11-4)-About school information (geographic location, things to remember, etc)?	15 38%	11 28%	4 10%	4 10%	6 15%
Q11-5)-About students' information (what grade, what level etc.)?	15 37%	12 29%	6 15%	4 10%	4 10%

수업시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받았다’ 고 응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5명(12%), ‘어느 정도 받았다’ 가 5명(12%)이었고 ‘거의 받지 못했다’ 는 응답은 9명(21%), ‘전혀 받지 못했다’ 가 14명(33%)이었다.

학생평가 방법과 평가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21명(53%)이 ‘전혀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고 ‘거의 받지 못했다’ 는 응답도 12명(30%)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한 응답은 합계 18%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게 될 수업내용과 수업자료, 그리고 협동수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9명(49%)이 ‘전혀 받지 못했다’ , 7명(18%)이 ‘거의 받지 못했다’ 라고 반응하였다.

근무 예정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한 질문에 15명(38%)이 ‘전혀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고 11명(28%)이 ‘거의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능력, 소속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5명(37%)이 ‘전혀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고, 12명(29%)이 ‘거의 받지 못했다’ 고 응답하였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게 될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면, 수업내용, 평가방법, 학교정보, 학생 정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수업을 담당할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수업평가와 관련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도 없이 학교를 배정 받고, 학교에 도착해서도 담당 한국인 교사로부터 수업운영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만 전달 받고 수업에 임한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 상황에 적응해 가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학습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한 학교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적응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학교를 겸임하는 경우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대체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적어도 2, 3년 정도의 기간을 학교 현장에 근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수업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된다. 학교 현장의 영어수업 방식, 수업 자료 및 수업 내용, 학생 수준, 학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수업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환경, 교통 여건, 주거환경 등 수업 외적인 면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3 학급규모 및 시수: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표 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담당 학급 당 학생 수

	less than 20	21-30	31-40	over 41
Q12)What i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present class?	9 15%	12 20%	28 47%	10 1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담당하는 학급당 인원수를 살펴보면, 20명 이하가 15%, 21명에서 30명 학급이 20%, 31명에서 40명 학급은 47%, 그리고 41명 이상 학급이 17%로 나타났다. 학급당 인원수가 31명 이상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영어회화 지도를 목표로 한다면 다인수 학급에 알맞는 수업

운영 방식과 여건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희망하는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less than 15	16-20	21-25	over 26
Q13)What do you think is the ideal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room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basic English conversation lesson?	23 43%	24 44%	7 13%	0 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희망하는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Q12)에 대한 반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학생 수 조절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학급 당 인원수가 ‘15명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3명(43%), ‘16명 이상 20명 이하’가 24명(44%)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내 학교의 일부 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가 45명을 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읍면 지역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인 경우도 있다. 읍면 지역은 학생 수의 자연감소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제주시 지역은 오히려 증가 추세여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원하는 학급환경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10> 주당 1시간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신장에 미치는 영향

	Yes	No
Q14)At the moment, you are involved in teaching English for each classroom once a week. Is it enough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English communicative skills?	3 7%	39 93%

학급별로 주당 1시간 정도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업시수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93%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하는 주당 적정 수업시수

hour	1	2	3	over 4
Q14-1)If not, how many class hours are more needed for a week?	2 5%	12 29%	14 33%	14 3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당 2시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참여하는 수업을 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명(5%), 3시간 12명(29%), 4시간 14명(33%), 5시간 14명(33%)으로 나타났다.

<표 12> 수업 진행 시 이중 언어(bilingual) 사용의 필요성

	1	2	3	4	5
Q16)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anguage situations at present, is bilingual (Korean and English) teaching desperately desired in English classroom? Do you feel that is necessary?	6 13%	4 9%	18 38%	9 19%	10 21%
Q17)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anguage situations(level of students, the size of classroom) at present, is it hard or almost impossible to incorporate an English-only class teaching style in your English classes?	8 17%	5 10%	11 23%	17 35%	7 15%
Q18) To teach English more effectively in a Korean classroom, many different strategies could be introduced into practical teaching. Of these, we can think about different group management.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divide students into a few (three or four) levels of proficiency based on their placement tests?	2 4%	3 6%	8 17%	12 26%	22 47%
Q19) Do you think classes that are flexibly managed by native teachers can be useful to students? For example, teaching strategies such as outdoor activities, two-hour classes etc. that can be used as supplemental English lessons at school.	0 0%	2 4%	5 11%	20 43%	20 43%

수업시간에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응답이 18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10명(21%), ‘필요하다’는 응답이 9명(19%)으로 나타났다.

학생수준, 학급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업시간 내내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명(15%), ‘잘 모르겠다’ 11명(23%), ‘거의 불가능하다’ 17명(35%) 등으로 나타나 영어수업 시간 내내 영어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는 응답이 22명(47%),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12명(26%)으로 조사되어 60%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실 밖 수업, 2시간 연속 수업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수업운영 유연성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바람직하다’에 20명(43%), ‘매우 바람직하다’에 20명(43%)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교실 내 일상적 영어 수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하고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수업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이중언어(영어와 한국어) 사용이 학습자들의 수업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19명, 40%)을 보여 한국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변을 보류한 비율(38%)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한국어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화 및 한국어 관련 강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교실환경이 아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만 의존할 만큼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학급당 인원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38명(Q12, 64%)인 반면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위한 적정 학생 수가 학급당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47명(Q13, 87%)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만나는 시간도 주당 1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당 3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학급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그룹형태 수업이나 분반 형태 수업 등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방안과 다인수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수업운영 방안 모색 등 다인수 학급에 알맞은 수업 운영 방식과 여건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영어수업 시간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원하는 단위학급 내 수업 보다는 수준별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이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주당 1시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은 시수가 너무 부족하고 그 효과도 적은 편이다. 집중과 선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느끼는 추가수업의 필요성(Q14-1, 3시간 이상 추가, 66%)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거나 평가관련 요소는 해결하기 힘든 요인이다.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교과목 석차가 중요한 요인이어서, 수준별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준별 평가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평가 제도가 수업운영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둠별 수업, 분반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과 수업 모형을 이용한 창의적인 수업 활동들이 교실 내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의 자연감소에만 기대하기는 힘들다. 학습 자료 선택, 수업 내용, 수업 과정, 운영방식(분반수업, 연속수업, 주제별 수업, 시기별 집중수업 등) 그리고 평가방식에 관한 선택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고 수업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3.4 수업태도: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학생들이 영어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영어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는가하는 학습자의 학습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13>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원인 분석-학습동기 측면

If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English, this is because of a	1	2	3	4	5
Q20-1)-lack of motivation	1 2%	4 9%	8 17%	19 40%	15 32%
Q20-2)-negative attitude toward English	1 2%	14 32%	13 30%	11 25%	5 11%
Q20-3)-fear of English teacher	6 13%	12 26%	16 35%	9 20%	3 7%
Q20-4)-lack of basic knowledge	2 4%	6 13%	13 28%	15 33%	10 22%
Q20-5)-lack of environment that allows students to practice English	1 2%	1 2%	9 20%	15 33%	20 43%

학생들의 영어 흥미도 저하에 따른 원인을 진단하는 여러 항목들 중,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는 견해에 15명(32%), ‘거의 그렇다’는 견해에 19명(40%)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지 않다’에 14명(32%), ‘그렇다’에 16명(36%)처럼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6명(35%)으로 가장 높고,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2명(26%)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 학력 부족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저하 시키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10명(22%), ‘거의 그렇다’라는 응답이 15명(33%)으로 나타나 원어인 영어보조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을 인식하고 있었다.

영어사용을 강화하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극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20명(43%), ‘거의 그렇다’는 응답이 15명(33%)으로 조사되었다.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참여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Q20-1, 72%)들에게서 인식되고 있다. 영어교육 외적인 면에 대한 관심과 지출은 폭발적이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사교육까지 받고 있지만 태도와 관련한 내적효과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부로 비춰지는 모습은 영어 학습동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 개개인의 실제 학습의욕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유발을 강화하는 수업운영과 과제 제시 등이 연구되어야 하고 학습동기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겠다.

학습동기의 저하는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영어능력에 관한 학생들의 수준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영어에 관한 기초학력 부진은 대개 영어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극히 적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영어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동기를 부추길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전략 개발에 많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은 교육기관을 벗어나면 영어를 마음껏 연습하고 활용해 볼 기회가 없어 영어 학습에 매우 불리하다. 영어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고 단지 교과 과목으로만 배우게 됨으로써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영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영어사용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격을 갖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추가 확보와 한국인 영어교사에 대한 집중적인 심화연수 실시 그리고 각종 영어 전용 방송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영어활용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5 제주 영어교육: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제주 영어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제주영어교육의 발전 가능성-다양한 수업 필요성

To develop English education in Jeju,	1	2	3	4	5
Q21-1)-various types of English classes must be designed depending on student's level of ability.	0 0%	0 0%	7 15%	13 28%	26 57%
Q21-2)-school work (homework) should be collected in English (e.g., once a week).	5 10%	2 4%	11 23%	14 29%	16 33%
Q21-3)-native teachers are involved in preparing various school materials such as English school notice and weekly plans to promote the use of English at school.	1 2%	4 9%	10 23%	13 30%	16 36%
Q21-4)-native teachers are supposed to meet with students outside the classes on a regular basis to help them improve their communicative skills.	7 15%	9 19%	10 21%	8 17%	14 29%

제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능력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담으로 ‘전적으로 필요하다’가 26명(57%), ‘거의 필요하다’가 13명(28%)으로 나타났다.

학교 과제물을 영어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6명(33%), ‘동의한다’에 14명(29%)이 응답하여 과제물 영어제출 방안도 수업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작하는 각종 안내문들(주간계획표, 각종 알림 등)도 영어로 제작·배포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6명(36%)이 ‘전적으로 그렇다’, 13명(30%)이 ‘거의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영어사용 환경 만들기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에서 학생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제주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14명(29%)이 ‘전적으

로 그렇다’ 에, 8명(17%)이 ‘거의 그렇다’ 에 각각 응답하였다.

<표 15>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What do you think are the best ways to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glish classes?	1	2	3	4	5
Q22-1)-At present, the evaluation made by native teachers is not added to the total score on English grades at the end. Could it be more effective in English teaching if your class should be included as one part of the regular grade at school?	2 4%	2 4%	5 10%	10 21%	29 60%
Q22-2)-On a regular basis, a group of students arrange to meet native teachers, or meet with both native English teachers and Korean English teachers.	1 2%	6 13%	9 20%	14 31%	15 33%
Q22-3)-Extra classes for the upper level students	4 9%	5 11%	8 17%	12 26%	17 37%
Q22-4)-Extra classes for the lower level students	3 6%	3 6%	9 19%	10 21%	22 47%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학생 평가에 참여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응답으로 ‘전적으로 그렇다’ 가 29명(60%), ‘거의 그렇다’ 가 10명(21%)으로 나타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독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학생들이 그룹별로 정기모임을 갖는 방안이 수업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보면 15명(33%)이 ‘전적으로 그렇다’ , 14명(31%)이 ‘거의 그렇다’ 는 반응을 보였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수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전적으로 그렇다’ 17명(37%), ‘거의 그렇다’ 12명(26%)이 있었고,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수업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답은 22명(47%),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은 10명(21%)으로 나타났다.

제주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묻는 여러 질문(표 14)에 대다수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동의한다’ , ‘필요하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간의 정기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

(Q21-4)에서는 절반 이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여러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업무 증가를 우려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영어교사(한국인 교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정기적인 만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Q22-2)에서 29명(64%)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단지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어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정규 교실수업 외에 영어특활반, 수준별 수업, 쓰기 위주의 수업, 연극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이 다양하게 제공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에 기초한 소그룹 학습을 기본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표현과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원어민을 교육현장에 투입한 결과로 나타나는 예견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학교에서 발행되는 각종 안내문도 한글과 영어로 작성·배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인식에 변화를 유도하고,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6 협동수업: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표 1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협동수업 교육 경험 유무

	Yes	No
Q23)Do you have any experiences in doing team-teaching? (Prior to arriving in Jeju-do)	21 45%	26 55%

제주도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협동수업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21명(45%)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하였고, 26명(55%)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하여 절반

이상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협동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수업 스타일 선호도

	Teaching with co-teacher(s)	Teaching all by yourself
Q24)Which one is more helpful to teach English?	28 65%	15 35%

실제 시행을 원하는 수업형태로는 한국인 교사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8명(6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단독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5명(35%)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실제 수업 전 한국인 교사와 협의 상황 1

	1	2	3	4	5
Q26)Before class, do you have much discussion about how to cooperatively teach English and what to teach?	13 28%	10 22%	16 35%	3 7%	4 9%
Q27-1)What do you think are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English cooperatively? -Because of the cultural difference in classroom.	5 12%	12 28%	11 26%	11 26%	4 9%
Q.27-2)-Because of the different people preparing class materials between you and co-teacher(s).	10 25%	9 23%	6 15%	8 20%	7 18%
Q27-3)-Because of a lack of time in cooperative preparation of class materials.	10 26%	4 10%	8 21%	7 18%	10 26%
Q27-4)-Because of some break-down on communication.	4 10%	6 14%	12 29%	10 24%	10 24%
Q27-5)-Because of a lack of proper facilities for preparation.	8 20%	14 34%	7 17%	7 17%	5 12%

수업 전에 가르칠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한국인 교사와 논의를 거치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3명(28%)이 ‘전혀 거치지 않는다’, 10명(22%)이 ‘거의 거치지 않는다’ 는 응답을 보였고, 논의를 하는 경우는 7명(16%)으로 나타났다.

협동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교실내의 문화적 차이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는 응답(15명, 35%)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는 응답(17명, 40%)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수업자료 준비를 하는 주체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10명(25%), ‘거의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9명(23%)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작 시간의 부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는 응답이 10명(26%), ‘전혀 부족하지 않다’ 는 응답이 10명(26%)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담당하는 학년, 학급 수 여하에 따라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항목은 한국인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매우 어려움이 많다’ 는 응답이 10명(24%), ‘조금 어려움이 있다’ 는 응답이 10명(24%)으로 나타나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절반 가량이 학교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의 제공이 부족한가에 관한 질문에서 ‘거의 그렇다’ 고 느끼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7명(17%), ‘거의 그렇지 않다’ 는 14명(34%)이 응답을 하였다. 자료제작에 필요한 장비의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시각과 청각을 집중시킬 자료 제작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들을 요구한다면 추가로 제공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표 19> 실제 수업 전 한국인 교사와 협의 상황 2

As for the preparation of English lesson:	1	2	3	4	5
Q29-2) -Working with several co-teachers could be a problem to prepare class materials in a coherent and proper way.	1 2%	5 12%	8 19%	8 19%	21 49%
Q29-3)-You have chances to talk about the students' background with your co-teacher (e.g., level of students, length of English learning, etc.).	6 14%	4 10%	15 36%	11 26%	6 14%
Q29-6)-Do you think co-teachers need to make some serious efforts in order to make cooperative teach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3 7%	3 7%	7 17%	13 32%	15 37%
Q29-9)-You clearly understood what role you are going to play and how you work together with your co-teacher.	6 14%	6 14%	9 21%	9 21%	12 29%

수업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 한 학년 담당 영어교사가 다수일 경우 여러 명

의 한국인 교사와 함께 자료를 만드는 것은 자료제작의 일관성을 저하 시키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하 시킨다’ 는 응답이 8명(19%), ‘매우 저하 시킨다’ 는 응답이 21명(49%)으로 나타났고 ‘저하 시키지 않는다’ 는 6명(%)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인 교사와 함께 자료를 제작하는 동안에 학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가라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 는 반응이(15명, 36%)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갖지 않는다’ 와 ‘아주 많이 갖는다’ 는 반응이 각 6명(14%)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협동수업준비를 위해서는 한국인 교사의 준비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15명(37%)이 ‘전적으로 그렇다’ , 13명(32%)이 ‘거의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신들은 수업준비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 12명(29%), ‘알고 있다’ 9명(21%)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Q24)처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협력교사로 한정시키면서 한국인 영어교사들에게 수업운영의 주요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동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 여부는 한국인 영어교사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중 협동수업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Q23, 21명, 45%) 협동수업을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음(Q24, 28명, 65%)을 알 수 있다. 협동수업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실행방안 연구, 교사연수 등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들도 협동수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협동수업을 시행하려하는 의도는 갖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담당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와 학교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현규(2000:50)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협동수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들 중 “과다한 수업 시수로 인해 협동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의 부족” 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학생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제작하고, 투입하여 협동수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협동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한국인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Q27-4의 4,5번, 20명, 48%)는 의견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견교환 수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수업 운영 전반에 관련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이유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 모두가 협동수업과 수업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및 수업진행 등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협동수업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한국인 영어교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수업의 이해, 과정, 수업전략, 학습활동 등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실제 수업에 선행되어야 하겠다.

수업자료 제작에 있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한국인 교사들과의 협동 제작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Q29-2, 29명, 68%)은 주목할 만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학습기자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다. 모든 안내문이 한글로만 설명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스스로도 사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료제작에 익숙하지 않다. 자료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영문 버전으로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겸임학교 근무를 수행하면서 수준별로 자료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셋째,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한 채 임의대로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한 시간 수업분량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관련 서적의 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인식한다.

넷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수업은 대개 말하기 위주 수업이어서 수업자

료에 제작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유대화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Q29-2)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스타일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제작한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 또한 한국인 교사와의 협동수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3.7 영어 수업: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신들의 실제 수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표 20> 수업 계획서

	Yes	No
Q30)Do you make a lesson plan, weekly or monthly?	40 89%	5 11%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40명, 89%)은 주간(또는 월간)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5명, 11%)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수업 자료 제작의 주체

	by myself	with co-teacher(s)
Q31)Do you prepare teaching materials all by yourself or together with co-teacher(s)?	44 92%	4 8%

수업자료 제작에 있어 한국인 교사와의 협력 없이 혼자 만든다는 응답이 44명(9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 21>의 결과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협

동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한국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교과 진행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겨 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은 듣고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어야 하며 그 수업에 투입되는 자료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수업 교재로 학교 영어교과서 활용 여부

	Yes	No
Q34)Do you us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your regular classes?	15 31%	33 6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수업 교재로 학교 영어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재로 활용한다’ 는 응답은 15명(31%)이었고 ‘활용하지 않는다’ 는 응답이 33명(69%)으로 나타났다.

<표 23> 수업 교재로 학교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If no, as for school English textbooks:	1	2	3	4	5
Q35-1)-They are too voluminous to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 of English communication.	5 17%	3 10%	12 41%	5 17%	4 14%
Q35-2)-The contents of them are too boring to attract students' attention.	2 7%	1 3%	7 23%	12 40%	8 27%
Q35-3)-The expressions are not natural and authentic for the development of English communication.	0 0%	3 9%	13 41%	7 22%	9 28%

학교영어 교과서가 너무 두꺼워서 내용이 방대하고, 의사소통 기능 활성화에 적절치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 5명(17%), ‘그렇지 않다’ 에 3명(10%), 유보적인 응답이 12명(41%), ‘그렇다’ 에 5명(17%), ‘매우 그렇다’ 에 4명(14%)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매우 그렇다’ 8명(27%), ‘거의 그렇다’ 12명(40%)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표현들이 어색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답을 유보한 응답자가 13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는 응답이 7명(22%),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9명(28%)으로 나타났다.

<표 24>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y in English,	1	2	3	4	5
Q37-1)-Some school subjects(math, science, etc.) should be taught in English.	12 26%	1 2%	12 26%	7 15%	15 32%
Q37-2)-There should be a group of co-teacher(s) who take complete charge of an English program.	5 12%	4 9%	13 30%	10 23%	11 26%
Q37-3)-Many English-only activities are introduced into the various school places to encourage students to use English more frequently.	1 2%	1 2%	13 27%	13 27%	20 42%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는 응답이 7명(15%),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15명(32%)으로 나타났고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의견도 12명(26%)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영어교사 그룹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11명(26%)이 ‘전적으로 있어야 한다’ , 10명(23%)은 ‘있어야 한다’ 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다양한 영어활동을 즐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20명(42%)이 ‘전적으로 그렇다’ , 13명(27%)이 ‘거의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표 2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중점 수업 영역

Q38)What is your main priority in you English class?	
-grammatical aspects	4 5%
-communicative competence	41 49%
-vocabulary and pronunciation	14 17%
-different cultural aspects	11 13%
-sentence reading/writing	6 7%
-other	7 8%

수업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수업의 중요성을 둔다는 응답이 41명(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휘와 발음에 14명(17%), 문화적 차이 이해에 11명(13%) 순이었으며 읽기와 쓰기, 문법적인 면에 중요도를 두는 답변은 각각 6명(7%), 4명(5%)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스스로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앞의 답변(Q29-9)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 수업(41명, 49%)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읽기·쓰기 능력 향상 수업(6명, 7%)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인식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6> 수업 평가에 대한 반응

	1	2	3	4	5
Q39)Students' and teachers' evaluations and comments are helpful to improve your English teaching.	1 2%	1 2%	9 21%	9 21%	22 52%

자신들의 수업에 대한 학생과 한국인 교사의 평가나 코멘트가 자신들의 수업 운영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응답이 22명(52%),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는 응답이 9명(21%)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수업평가도 단순히 평가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협동수업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7> 한국사회의 일상 영어 사용 준비 상태

	1	2	3	4	5
Q40)I feel that Korean society is ready to use English in everyday life.	14 32%	10 23%	13 30%	3 7%	4 9%

한국사회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7명(16%)정도 만이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응답하였고 10명(23%)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고 하였으며 14명(32%)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영어수업에 관한 내용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교 영어교과서를 자신들의 수업교재로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보고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교재 구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수업 시수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표현들 중 일부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한국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실생활에서는 사용 빈도수가 지극히 낮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구어적 표현들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 듣고 말하기 위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영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영어를 활용한 타 교과 수업이 ‘필요하다’ 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Q37-1, 22명, 47%),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13명, 28%)도 적지 않다. 이는 앞으로 시행 계획에 있는 영어활용 타 교과 수업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활용 타 교과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으로 해석되며, 장기간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한 학교 내에는 한국인 영어교사가 여러 명이며 이들이 서로 다른 학년과 학급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영어수업은 주

당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 한 명의 교사가 5개 학급을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한 학년 당 최소 2개 학급 이상, 3개 학년 총 6학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co-teacher가 2명 이상의 한국인 영어교사와 같이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각각의 한국인 영어교사가 원하는 학습방식과 스타일 위주로 수업 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영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등 자투리시간을 영어놀이, 프로젝트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하여금 꼭 수업에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어활동도 수업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는 정책적 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방학 중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주당 22시간 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어에 노출될 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영어캠프, 지역별 영어캠프, 지역 교육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 캠프 등이 그 실현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유급휴가는 전반기 7일, 후반기 7일, 재계약시 14일, 병가 15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방학 중 교사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의 여름방학(약 4주), 겨울방학(약 8주)도 모두 유급으로 쉬고 있어, 병가 15일을 제외하고도 1년 중 약 4개월을 휴가로 보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에 이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평가에 대해서 압도적인 찬성(Q39, 31명, 73%)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평가제는 EPIK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업 평가 후, 우수 영어보조교사로 선정되면

보수가 한 등급 상향 조정됨으로써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선정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 단순평가가 아닌 발전적이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업평가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조건의 일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영어사용 준비 상태에 대해서는 24명(55%)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주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교사를 비롯한 영어사용이 가능한 공무원들을 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사회의 영어사용 준비 상태에 대한 평균기대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투입하여 영어교육에 활용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비롯한 연수기관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영어강좌를 확대·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뒤따라야 하겠다.

3.8 학생 태도: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견해를 세 가지 측면 즉, 언어적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언어적 측면에 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표 28>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언어적인 면

In general, Korean students in English class hesitate to express themselves when asked. What do you think of the following aspects of Korean students in developing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linguistic aspects)	1	2	3	4	5
Q42-1)- lack of sufficient English vocabulary (e.g., choice of vocabulary)	6 13%	11 24%	12 27%	12 27%	4 9%
Q42-2)-lack of sufficient comprehension skills	2 4%	6 13%	17 37%	16 35%	5 11%
Q42-3)-lack of sufficient English speaking skills (pronunciation, rhythmic patterns)	1 2%	7 16%	6 14%	18 41%	12 27%
Q42-4)-lack of grammatical understanding	6 14%	14 32%	17 39%	5 11%	2 5%
Q42-5)-lack of discussion/presentation	1 2%	4 9%	9 20%	16 36%	14 32%
Q42-6)-lack of exposure to spoken English	0 0%	3 7%	5 11%	14 31%	23 51%

학생들이 수업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인이 학생들의 어휘력이 약해서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반응이 4명(9%), ‘거의 그렇다’ 는 반응이 12명(27%)이었고, ‘어휘력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반응은 17명(37%)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극적 반응이 학생들의 이해력 부족에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에 5명(11%), ‘거의 그렇다’ 에 16명(35%), ‘그렇지 않다’ 에 6명(13%), ‘전혀 그렇지 않다’ 에 2명(4%)이 반응을 보였다.

발음과 리듬 같은 말하기 능력의 구성요소가 충분치 않아서 소극적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답은 12명(27%),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은 18명(41%)로 ‘그렇지 않다’ 는 반응(8명, 1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문법적 이해력이 낮아 수업에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는 반응은 7명(16%)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는 반응은 6명(14%), ‘거의 그렇지 않다’ 는 반응은 14명(32%)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인이 토론이나 발표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

답이 14명(32%),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이 16명(36%)으로, ‘그렇지 않다’ 4명(9%), ‘전혀 그렇지 않다’ 1명(2%) 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수업 중 소극적인 의사표현의 원인이 구어체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23명(51%),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이 14명(31%)으로 나타났다.

<표 29>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문화적인 면

(in cultural aspects)	1	2	3	4	5
Q42-7)-different level of talkativenes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2 5%	6 14%	15 35%	8 19%	12 28%
Q42-8)-do not want to talk in front of the public	0 0%	4 9%	12 26%	14 30%	16 35%
Q42-9)-do not want to talk in front of the students with a higher ability of communicative skills.(e.g., peer pressure)	0 0%	3 7%	6 13%	18 39%	19 41%

학생들의 영어 수업 중 소극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수업 중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말하기 능력의 차이가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답은 12명(28%),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이 8명(19%)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 의사표현에 소극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적으로 그렇다’ 가 16명(35%), ‘거의 그렇다’ 가 14명(30%)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는 4명(9%)정도였다.

학생들이 수업 중 원어민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동료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뛰어난 동료들 앞에서는 말하기가 싫어져서 그러한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답이 19명(41%), ‘거의 그렇다’ 는 반응이 18명(39%)으로 나타났다.

<표 30>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의 원인-심리적인 면

(in psychological aspects)	1	2	3	4	5
Q42-10)- not to make any mistakes and trying to be perfect	1 2%	4 9%	9 20%	12 26%	20 43%
Q42-11)-speaking only when students are sure of something	1 2%	4 9%	11 24%	11 24%	19 41%
Q42-12)-little confidence in speaking English	0 0%	0 0%	8 18%	18 40%	19 42%
Q42-13)-fear of losing one's self-identify by using English	12 27%	11 25%	15 34%	3 7%	3 7%
Q42-14)-being shy when speaking in public	1 2%	3 7%	4 9%	21 47%	16 36%
Q42-16)-not to talk first actively/just listen with a minimum response	2 4%	3 7%	9 20%	18 39%	14 30%

학생들의 영어 수업 중 소극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실수 없이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중 의사표현에 소극적이거나 라는 질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20명(43%)이 ‘전적으로 그렇다’, 12명(26%)이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을 보였다.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듣고 무언가 답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표현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19명(41%)이 ‘전적으로 그렇다’, 11명(24%)이 ‘거의 그렇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말하기에 자신감이 모자라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데 머뭇거리게 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렇다’ 는 19명(42%),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이 18명(40%)으로 조사되었다.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까 봐 수업 중 의사표현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견해에는 33명(52%)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세계인들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을 강화하는 것일 뿐 개인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료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 할 때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

끼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중 질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 는 응답이 16명(36%), ‘거의 그렇다’ 는 응답이 21명(47%)이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 중 질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문에 맨 처음의 응답자가 되기 싫어하는 것 때문인가라는 질문에도 14명(30%)이 ‘전적으로 그렇다’ , 18명(39%)이 ‘거의 그렇다’ 고 응답을 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어휘력에 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어휘력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요소이며,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어휘력 신장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의 어휘력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는 데 비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학생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휘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결여 등 언어 외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학생들이 가까운 장래에 입시와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그리 많은 어휘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운 단어나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서너 개의 단어 조합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면을 학습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력에 관한 질문(Q42-2)에 21명(46%)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각종 단어와 표현(words & expressions)의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시켜 버림으로써 상황과 문맥에 따른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et out of here!” 라는 표현은 권위적이고 부정적이며 상대방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내뱉는 말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동일한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화용적인 측면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게 된다.

우리말과 달리 인토네이션과 리듬이 의사전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에 어색함이 있거나 학급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수업환경 조

성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로 하여금 억양과 리듬을 사용한 말하기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학생들이 갖추고 있는 영문법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영어를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정적 문법 지식적인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생들이 구어체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것을 학생들의 소극적 의사표현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Q42-6, 37명, 82%). 이는 외국어 학습에서 목표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 주는 응답 결과라고 하겠다. 상당한 어휘력과 문법적 지식도 실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목표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음을 상기할 때 영어수업이 듣기·말하기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야 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입시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영어지식의 습득을 무시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게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 할 것이다.

말하기 면에서 볼 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하고(30명, 65%), 특히 자신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주저한다는(37명, 80%) 인식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의사표현에서 언어 외적인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과 교사 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이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교사중심(teacher-centered) 수업진행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전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업환경은 학생들에게 자기주장 발표나 질문-답변 형태의 수업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평상시에 학생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문화적 배경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최근의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언어연구에서 학자들이 사회문화적, 화용적 상황의 이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 환경을 갖고 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언어에 직접

투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Ellis, 1994).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충분한 교감을 쌓은 학생들이 가끔 동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언어 외적상황이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교사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일수록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이 더 심한 시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사의 질문이 퀴즈 형태 또는 추측게임의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수업 시간과 달리, 학생들 개별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수업 외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만나서 질문을 하려고 한다. 때로는 메일도 주고받으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의견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어외적 환경이 충족될 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이러한 문화 환경적 차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또한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떤 언어를 배워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하기’는 정상적인 학습단계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학습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수’가 곧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존심과 체면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생각하여 수업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Q42-10, 32명, 69%)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도 판단하고 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당연히 말하기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결과(Q42-12, 37명, 82%)를 낳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듣기·말하기 중심의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은 상호작용을 위한 절대적 요소이다. 그러나 수업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학기 초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도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의사소통 중심에서 멀어져 가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 습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업 운영 시 모둠을 구성해서 수업에 참여토록 하고 모둠구성원 전체가 발

표를 하면 상을 주는 방식, 모둠구성원 중 상위학생의 발표는 낮은 점수를, 하위학생의 발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의사표현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3.9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들을 서술하라는 문항(Q9-5)에 응답한 인원은 총 30명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문화 및 한국어 관련 사항

1) Cultural experiences, Getting to know colleagues; especially those who will be assigned in the same region(province, city even), Sharing ideas, successful methods, Good lectures, not ones for the sake of lecturing but ones that are pertinent to the jobs at hand, Resources. Viewing classrooms in session, Getting to know students.
2) Language and cultural instruction. Techniques to cushion the impact of cultural shock. Some further teaching techniques. Fun parties to relieve stress etc.
3) Korean language training - Basic expression. Korean classroom training - Less theoretical more applied.

<표 32>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학교 및 학생 관련 사항

1)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chools in particular. i.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program should include visual supports such as video tape on what's really happening at school. The tape that we viewed during the orientation was all set-up: students knew about the lesson and perhaps rehearsed in prior to the video recording.
2) More information about the 'PEO'(Provincial Education Office) and the housing, schools and other details that deal directly with the English teaching post.
3) I found out my schools and met my co-teachers 3 days before the semester began.

<표 33> 오리엔테이션에서 꼭 얻고 싶은 정보-수업운영 관련 사항

1) Lesson plan ideas, how to teach, what you would like to teach.
2) Classroom observation, Expectations for each grade level, How to do lesson plan, Familiarization of curriculum.
3) I wish I had been given time to prepare for classes and make a semester teaching plan with all of my co-teachers. I was given very little information.
4) Classroom management(noise, participation), Korean educational system and culture, ETA + co-teacher relationship, how to teach in a mixed-level classroom.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받는 정보들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세부적인 항목과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를 원하고 있다. 짧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착한 이후(Q10, 4번 21%, 5번 37%) 제주의 실정 이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기 중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할 기회조차 없으며, 어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생활의 기초(how to survive in Korea)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 적응하고 문화를 익혀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및 수업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교 정보 제공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겠다.

3.10 협동수업관련(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총 2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협동수업과 관련한 한국인 교사의 활동에 대한 조언(Q29-8)들을 서술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협동수업에 대한 견해-상호협조

1) Open communication, feedback and criticism between co-teachers and native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2) Have meetings regularly and have them aware of the concept of 'co'teaching.
3) An open mind and genuine effort to communicate well are most important.

<표 35> 협동수업에 대한 견해-애로사항

1) They should give us much more advice about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2) Plan the work for a week in Advance.
3) Be more open about what you want and the goals of class.

협동수업을 실시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간의 상호협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협동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두 교사 간의 이견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당국에서는 협동수업 실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협동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이에 협동수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을 서로 맞추어 보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협동수업을 시행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여 서로의 역할을 결정하고, 어떤 활동을 이용한 수업을 할 것인지, 각자가 원하는 수업 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지속적인 협동수업의 실시에 대해서 한국인 영어교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협동수업 실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으로 협동수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학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3.11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서술형): 내용분석 및 교육적 시사점

교육정책, 수업운영, 수업전략 등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서술형 응답을 요구하는 항목에 총 30명이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응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조언

- Many both English & Korean teachers have good ideas but feel that they will not be listened to, so feel discouraged.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bring ideas forward, both to improve teaching and to encourage the teacher to feel part of the education system.
- People(Korean parents, students, co-teachers) need to see English teachers as real teachers. Western teachers will work hard when they feel they are valued as such and not just a western face.
- Going to workshops or group idea sessions should be encouraged but plenty of time should be given.
- Bad English teachers should not be tolerated.
- One bad(lazy) teacher reflects on all, and should be warned removed in a proper, professional manner.
- English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o to remove the 'us'/'them' viewpoint.
- Sometimes English teachers feel that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ism in management such as not paid severance on time, or required to fill out forms repeatedly, or told one thing for it only to be changed later. This causes burden and resentment which spreads through the foreign teachers. While cultural attributes must be respected management professionalism will force the western teachers to be more professional. Uncertainty causes resentment.
- However, just praising the foreign teachers over the Korean teacher causes tension between foreign and Korean teachers. Don't treat foreign teachers as people who are special, be professional, and equal in praise for both the Korean & English staff.
- Perhaps, a position should be created where the foreign teachers could go with their problems both in/out of school. However this person must have the power to change things or at least to have these problems listened to. They also need to be sympathetic to the western teacher and not associated with the bureaucracy. (perhaps a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a while.)

<표 36>에 나타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서 우리말로 옮겨 보도록 하겠다.

- 많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실망하게 된다. 교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내야 하고, 그 아이디어는 교수-학습에 유용한 것이어야 하고 교사 자신을 교육주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 학부모, 학생, 한국인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정식 교사로 인식해 주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자신이 정당하게 가치를 평가 받을 때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얼굴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워크샵이나 포럼에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하며 그에 알맞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게으르거나 질 나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단에서 방출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체가 안 좋은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수강하도록 하여 우리(us)/ 그들(they)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도록 하여야 한다.(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us)과 한국인 영어교사들(they) 사이에 심리적인 벽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가, 서류를 반복해서 작성하게 한다는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는 등 관리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음을 느낀다. 이런 것은 개인에게도 상당한 불쾌감을 주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일처리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일방적으로 치켜세워주기는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특별한 존재로 대접하지 말고 한국인 영어교사와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원어민 영어교사의 고충을 해결 해 줄 권한이 있는 고충처리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 직접 해결을 해 주지 못한다면 최소한 고충을 들어 주기라도 할 전

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여야 하며 관료주의적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한다. 한국거주 경험이 있는 원어민이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근무하고 있는 EPIK프로그램과 Fulbright프로그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육 과정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바라본 우리 영어교육의 현 주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제기하는 영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오리엔테이션기간이 현행 2주에서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학교 수업 참관 프로그램 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채워져야 한다. 특히, 영어교육 방법론 등 교육관련 실제 정보들을 자세하게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즉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정책, 교과과정, 수업운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스스로 교육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워크숍을 열어주어야 하고, 협동수업에 대한 이해와 수업모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근무지 배정과 주거환경 관리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근무지와 주거지가 수업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개인의 삶의 질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와 주거환경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와 발표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안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심리적인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신감 불어넣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집중과 선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넷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는 문화차이에서 겪게 되는 문화충격, 고립감,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신혜(2002)도 수업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교실에 배치하여 교실에서는 목표어 사용이 주가 되는 동시에 학습자의 모국어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히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인 영어교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영어교육의 동반자로 가까이 받아들여 협동수업 방안, 학생관련 정보, 한국의 입시정책 등 수업외적인 면까지 이들과 함께 정보공유를 하는데 협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협동수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한국인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협동수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덜 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협동수업을 위한 공동 수업 계획안은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작성하여야 하는지, 그 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어민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역할은 어떤 영역에서 구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있어야 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갖고 있는 ESL(EFL) 교육경력이 매우 짧고(Q7, 1년 미만 33%, 1년 20%) 한국에서의 교육경험도 많지 않아서(Q8, 1년 미만 15%, 1년 35%) 교육적인 노하우가 쌓여 있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한다면 연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과 한국인 영어교사에 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평가는 바람직하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도 평가에 의한 피드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업평가와 원어민 평가는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평가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탑재하고 그것을 수업평가위원들(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과 한국인 영어교사들)이 평가한 후, 상위권으로 평가된 소수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수업평가를 포함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평상시 근무자

세, 열의, 성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한 결과를 재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부적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교단에 장기간 서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서는 도주하다시피 한국을 떠나버리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에는 자신의 통신비, 숙소 관리비 등을 해결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 병가를 빙자하여 주말을 끼고 앞뒤로 결근하면서 놀러 다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학교현장에 배치되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훌륭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일정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거친 후 반드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선발·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음주로 인한 결근, 병가제도의 악용,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평가는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각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교사나 평가위원들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용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겠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발부터 근로계약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자체 기준 설정, 적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체계적인 정보제공, 한국사회와 적절한 관계형성, 연중 활용 방안, 질 높은 교육성과 도출,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의 재계약 체결, 계약 해지 후 관리 등 막중한 역할을 전담할 부서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EPIK을 시행한 지 10여년, 아직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장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의 질적인 면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어교육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큰 진전이 있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변화를 넘어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을 실제로 확인 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된 정책적인 면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학교 현장에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입장에서 그들의 제안을 선별·수용하고 이를 우리 영어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곧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의 사소통 능력향상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시·도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5),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6), 외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5),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 실무안내서.
- 김덕경(2005), Cooperative Learning, 제주SETA 연수자료
- 김소영(2006),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채용 및 활용에 관한 문제 분석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혜(2005), “비원어민 교사들의 영어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21-47.
- 김신혜, 광병권(2002)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3), 211-241.
- 류수진(2004), “영어원어민을 활용한 협동수업의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화(1996), “원어민 영어교사 활용을 위한 제언”,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1), 29-42.
- 박양숙(1978), “팀 티칭에 의한 유치원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근(2000), “협동수업을 통한 영어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언(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결과 분석”, 「영어교육」 52(1), 161-187.
- 배두분(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백신정(2003), “문화간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문실(1997), “한국적 교육여건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효율적 관리”, 우송산업대학교 논문집 2, 301-323.

- 윤근호(2004), “구조 중심적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88),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협동수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1),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이 중학교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규(2000), “원어민 보조교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1984), “구한말의 영어교육에 관한 회고”, 「영어교육」 27, 1-5, 한국영어교육학회.
- 정광주(1988), “원어민 교사의 실제 수업과 그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길정, 민찬규, 박매란(1999), “원어민 영어 교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초·중등학교 영어 협동 수업 현황 조사 연구”, 「영어교육」 54(2), 201-227.
- 정길정, 연준흠(1997), 「협동수업 지도론」, 서울 : 한국문화사.
- 정문성(2002),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200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및 지원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6), 제주특별자치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현황.
- 조명원, 이흥수(1993), 「영어교육사전」, 서울: 한신문화사.
- 한국일보(2007), 2006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 한양희(2003),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자료, 충청남도 교육연구원.
- 허창범(1996),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에 대한 연구”, 「대불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2, 111-130.
- 현성환(1998),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 협력수업 모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심, 정양수(2006),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영문학」 50(3), 137-164.
- Albert, R. D.(1999), “문화의 다양성과 다국적 조직내의 이문화 적응 훈련”,

「비서학연구」 19, 이화여자대학교.

David Graddol(199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Ellis, R.(1994) *The Stud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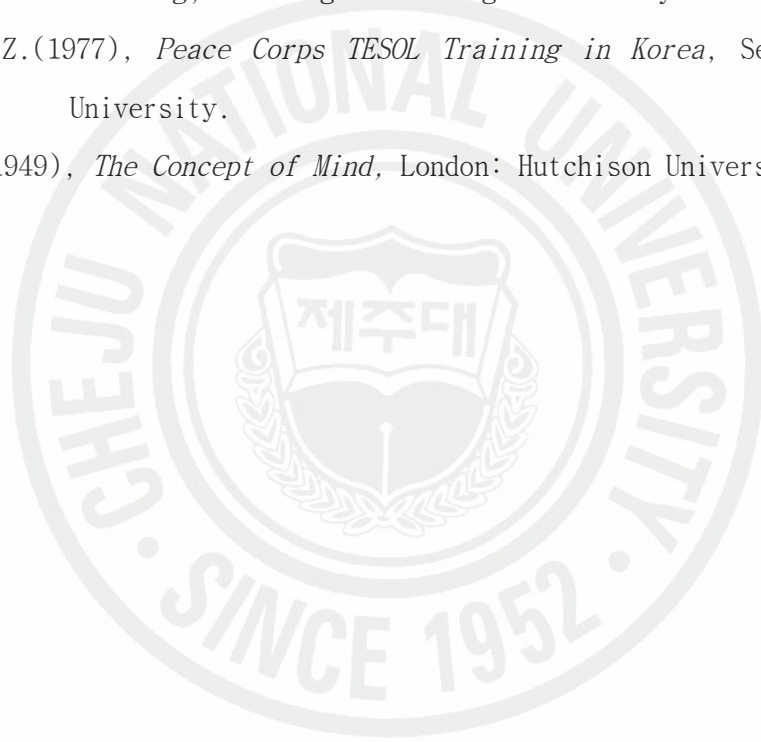
Johnson, D. W. and Johnson, R. T.(1999),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on and Individualization*, Boston: Allyn and Bacon.

Medgyes, P.(1994), *The Non-Native Teacher*, London: Macmillan Publishers.

Richard, J. C. and Rogers, T. S.(1988),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s, R. Z.(1977), *Peace Corps TESOL Training in Korea*, Seoul: Myongji University.

Ryle, G.(1949), *The Concept of Mind*, London: Hutchiso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Perspective of English Language Instructors on
English Education in Jeju Special-Governing Province

Lee, Jae You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 Yong

EPIK (English Program in Korea) has been in existence for over 10 years. It began in 1995 with 59 English Language Instructors and the demand for such instructors in English educ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t first, it was simply a curiosity of students to be taught English by foreign teachers in Korean classrooms. However, it has been shown clearly that students greatly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by working with ELI's.

As of 2007, there are 69 ELI's in Jeju. They are teaching English once a week for each clas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now seems appropriate to survey how much comfortable they feel teaching English, what difficulties they face in school life and listen to their suggestions for better English education in Jeju.

This thesis surveyed the perspective of 49 ELI's on the orientation program given by the Education office, the students they taught, their English class environment (including cooperative teaching with Korean teachers) and asked them to write down ideas for improving English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ELI's need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ntent, methodology of teaching English and better feedback during orient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school system.

ELI's teaching once a week in each class is not enough for students to build communicative competence, therefore cooperative teaching must be applied as often as possible.

Bilingual classes are more effective and helpful in order for students to participate during ELI's classes. Korean courses (Korean culture courses) should be offered so as to help ELI's during bilingual classes and also in the comprehension of Korean culture.

To be most effective utilizing cooperative teaching techniques with Korean teachers, sustainable workshops should be prepared in which Korean teachers and ELI's could share ideas, procedures and strategies for cooperative teaching.

This study will address the suggestions of ELI's for more efficient ways to create a successful English teaching environment in Korea. As a result, this paper will benefit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help them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working and teaching policies for ELI's in the EPIK program.

<부록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상 설문지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This survey is designed for academic research to see how native teachers of English feel regarding English education in Jeju. I would like to hear your honest opinions to improve English teaching environment from a native speaker's point of view. This is voluntary and you have the right to discontinue participation at any time or refuse to answer any question(s) for any reason. Hopefully, this will lead to better foreign language services in Jeju. I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and hope this survey will benefit you in some way, too.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in advance.

December 19, 2006

Researcher : Lee Jae-Young,
dajooji@hanmail.net

=====

- * Direction: 1. Put a check(✓) by the appropriate response.
2. If necessary, make a check referring to the following criterion.

low expectancy (the lowest)						high expectancy (the highest)	
(never)	-----	(rarely)	-----	(not usually)	-----	(usually)-----	(always)
----- ----- ----- -----							
1□		2□		3□		4□	5□

10. Upon coming to Jeju
- To get yourself settled down in Jeju, is it desirable to have a more detailed workshop just before you start work at school?
1 2 3 4 5
11. Does Jeju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ffer you enough information :
- About teaching hours (a semester, a week, class make-up plan, etc)?
1 2 3 4 5
 - About how to test and grade (the way of grading, evaluating, etc)?
1 2 3 4 5
 - About what to teach (contents, teaching materials, the way of (co-) teaching, etc)?
1 2 3 4 5
 - About school information (geographic location, things to remember, etc)?
1 2 3 4 5
 - About students' information (what grade, what level etc.)?
1 2 3 4 5
- [About your class]**
12. What i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present class?
 less than 20 21-30 31-40 more than 41
13. What do you think is the ideal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room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basic English conversation lesson?
 less than 15 16-20 21-25 more than 26
14. At the moment, you are involved in teaching English for each classroom once a week. Is it enough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English communicative skills?
 yes no
- If not, how many class hours are more needed for a week?
 1 hour 2 hours 3 hours 4 hours
15. Are you clearly aware of what you are teaching and what your role is in the classroom during the lesson?
1 2 3 4 5
16.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anguage situations at present, is bilingual (Korean and English) teaching desperately desired in English classroom? Do you feel that is necessary?
1 2 3 4 5
17.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anguage situations(level of students, the size of classroom) at present, is it hard or almost impossible to incorporate an English-only class teaching style in your English classes?
1 2 3 4 5

18. To teach English more effectively in a Korean classroom, many different strategies could be introduced into practical teaching. Of these, we can think about different group management.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divide students into a few (three or four) levels of proficiency based on their placement tests?

1 2 3 4 5

19. Do you think classes that are flexibly managed by native teachers can be useful to students? For example, teaching strategies such as outdoor activities, two-hour classes etc. that can be used as supplemental English lessons at school.

1 2 3 4 5

[About students]

20. If students are not interested in English, this is because of a ...

- lack of motivation

1 2 3 4 5

- negative attitude toward English

1 2 3 4 5

- fear of English teacher

1 2 3 4 5

- lack of basic knowledge

1 2 3 4 5

- lack of environment that allows students to practice English

1 2 3 4 5

21. To develop English education in Jeju,

- various types of English classes must be designed depending on student's level of ability.

1 2 3 4 5

- school work (homework) should be collected in English (e.g., once a week).

1 2 3 4 5

- native teachers are involved in preparing various school materials such as English school

notice and weekly plans to promote the use of English at school.

1 2 3 4 5

- native teachers are supposed to meet with students outside the classes on a regular basis to help them improve their communicative skills.

1 2 3 4 5

22. What do you think are the best ways to encourag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glish classes?

- At present, the evaluation made by native teachers is not added to the total

29. As for the preparation of English lesson:

- You have to work with several co-teachers depen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This leads you to work together with several co-teachers. Which one is preferred: one co-teacher works with you intensively or several co-teachers work with you whenever needed?

1 2 3 4 5

- Working with several co-teachers could be a problem to prepare class materials in a coherent and proper way.

1 2 3 4 5

- You have chances to talk about the students' background with your co-teacher (e.g., level of students, length of English learning, etc.).

1 2 3 4 5

- To make a whole lesson plan, the first step is to organize a committee which is in charge of setting up the schedule on co-teaching.

1 2 3 4 5

- In general, there is a certain level of break-down of communication with your co-teacher in selecting teaching materials and making lesson plans, or handouts, etc.

1 2 3 4 5

- Do you think co-teachers need to make some serious efforts in order to make cooperative teaching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1 2 3 4 5

- You clearly understood what role you are going to play and how you work together with your co-teacher.

1 2 3 4 5

- Do you have any suggestions or comments on this kind of working with your co-teachers?

[About English class]

30. Do you make a lesson plan, weekly or monthly?

Yes No

31. Do you prepare teaching materials all by yourself or together with co-teacher(s)?

by myself with co-teacher(s)

32. What type of (team-) teaching plans should be desired and prepared?

daily weekly monthly semi-annually
annually

33. Should the school you work at provide some fundamental teaching aids (computer-related equipment, teaching tools, flash card, crayon, etc), and

teaching materials (information materials needed for class) whenever needed?

1 2 3 4 5

34. Do you use school English textbooks in your regular classes?

yes (if yes, go to No. 36) no (if no, go to No. 35)

35. As for school English textbooks:

- They are too voluminous to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 of English communication.

1 2 3 4 5

- The contents of them are too boring to attract students' attention.

1 2 3 4 5

- The expressions are not natural and authentic for the development of English communication.

1 2 3 4 5

36. For an effective preparation of English lessons (for example, monthly class materials):

- Working with co-teachers is desperately needed.

1 2 3 4 5

- English lesson plans are prepared during a certain specific time (in vacations, for fixed time, everyday etc.)

1 2 3 4 5

- The whole lesson plans(or the goals of each plan) are clearly set up before school starts.

1 2 3 4 5

- Extra financial aid to buy class materials(if receipts are attached) help you make your classes more effectively organized.

1 2 3 4 5

37.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ability in English,

- Some school subjects(math, science, etc.) should be taught in English.

1 2 3 4 5

- There should be a group of co-teacher(s) who take complete charge of an English program.

1 2 3 4 5

- Many English-only activities are introduced into the various school places to encourage students to use English more frequently.

1 2 3 4 5

38. What is your main priority in you English class?

1 grammatical aspects 2 communicative competence
3 vocabulary and pronunciation 4 different cultural aspects
5 sentence reading/writing 6 other(specify:)

39. Students' and teachers' evaluations and comments are helpful to improve your English teaching.

1 2 3 4 5

40. I feel that Korean society is ready to use English in everyday life.

1 2 3 4 5

41. I feel that there is littl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other staff at school.

1 2 3 4 5

[About Korean Students]

42. In general, Korean students in English class hesitate to express themselves when asked. What do you think of the following aspects of Korean students in developing their communicative skills?

(in linguistic aspects)

- lack of sufficient English vocabulary (e.g., choice of vocabulary)

1 2 3 4 5

- lack of sufficient comprehension skills

1 2 3 4 5

- lack of sufficient English speaking skills (pronunciation, rhythmic patterns)

1 2 3 4 5

- lack of discussion/presentation

1 2 3 4 5

- lack of grammatical understanding

1 2 3 4 5

- lack of exposure to spoken English

1 2 3 4 5

(in cultural aspects)

- different level of talkativenes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1 2 3 4 5

- do not want to talk in front of the public

1 2 3 4 5

- do not want to talk in front of the students with a higher ability of communicative skills.(e.g., peer pressure)

1 2 3 4 5

(in psychological aspects)

- not to make any mistakes and trying to be perfect

1 2 3 4 5

- speaking only when students are sure of some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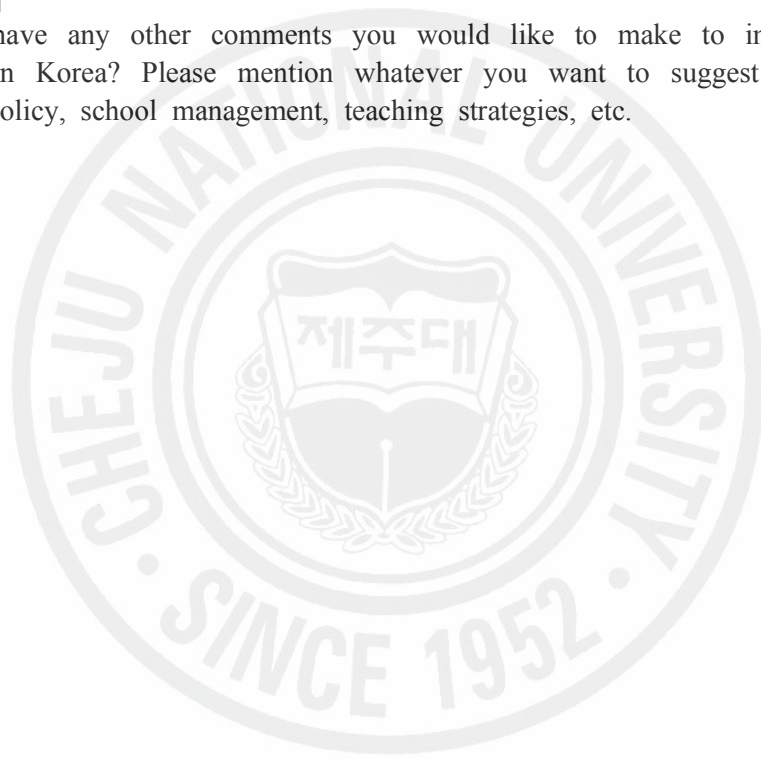
1 2 3 4 5

- little confidence in speaking English
1 2 3 4 5
- fear of losing one's self-identify by using English
1 2 3 4 5
- being shy when speaking in public
1 2 3 4 5
- too much pressure to talk
1 2 3 4 5
- not to talk first actively/just listen with a minimum response

1 2 3 4 5

[Comments]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you would like to make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in Korea? Please mention whatever you want to suggest regarding our education policy, school management, teaching strategies, etc.



<부록 2>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얻고 싶어 하는 정보

Q9-5) What are the thing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kind of orientation. Please describe.

- 1) The high-level students encourage the low-level when in the same classroom.
- 2) I wish I had been given time to prepare for classes and make a semester teaching plan with all of my co-teachers. I was given very little information.
- 3) In classroom experience, Korean language, information about your assigned school and living space.
- 4) Language training, Teacher training(lesson planning, classroom management, etc.) Cultural Training(insa, etiquette, etc.), Cultural adjustment suggestions.
- 5) Fulbright orientation is fantastic - the language class component is crucial. I think they covered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Korean experience. Cultural training, Language, Teaching opportunity, Teaching workshops and cultural field trips.
- 6) Cultural experiences, Getting to know colleagues; especially those who will be assigned in the same region(province, city even), Sharing ideas, successful methods, Good lectures, not ones for the sake of lecturing but ones that are pertinent to the jobs at hand, Resources. Viewing classrooms in session, Getting to know students.
- 7) Korean language lessons, Teaching workshops, Cultural workshops / presentations, Classroom observation/practice teaching lessons.
- 8) Cultural sensitivity, Korean language, Making a good first impression, Korean history, Teaching at a camp/making lesson plans, Teaching, Volunteering opportunities. (All done by fulbright during orientation)
- 9)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chools in particular. -i.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program should include visual supports such as video tape on what's really happening at school. The tape that we viewed during the orientation was all set-up: students knew about the lesson and perhaps rehearsed in prior to the video recording.

- 10) More information about the 'PEO' (Provincial Education Office) and the housing schools and other details that deal directly with the English teaching post.
- 11) To write several lessons and to receive feedback, To learn a lot more about the level of your students.
- 12) Classroom management(noise, participation), Korean educational system and culture, ETA + co-teacher relationship, how to teach in a mixed-level classroom.
- 13) Language training is essential, typical classroom problems and solutions, basic Korean cultural orientation(customs, trends, etc.)
- 14) A lot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cultural differences. Classroom management tips. Practical ideas for teaching. Breakdown of age appropriate / level appropriate resources / guidelines / teaching tips. An awareness of western culture and education system or sensitivity towards that would also be helpful.
- 15) Classroom observation, Expectations for each grade level, How to do lesson plan, Familiarization of curriculum.
- 16) Korean culture, language, history and education.
- 17) Korean classroom culture.
- 18) Korean language training - Basic expression. Korean classroom training - Less theoretical more applied.
- 19) I would like to see more content related to discipline in the classroom. I have had major issues with discipline since the beginning.
- 20) Lesson plan ideas, how to teach, what you would like to teach.
- 21) Teaching methods, What aspects of the language should be focused on in class. Activities which reinforce what is taught in class.
- 22) I found out my schools and met my co-teachers 3 days before the semester began.
- 23) I never given an orientation.
- 24) Language and cultural instruction. Techniques to cushion the impact of cultural shock. Some further teaching techniques. Fun parties to relieve stress etc.
- 25) Basic Korean Language, Actual classroom visitation
- 26) I was not given ANY orientation
- 27) The best bit of my orientation back then was a demonstration class led by a NEST/ Korean English Teacher team. Also, please don't Force Korean

language learning. These classes should be optional. Dorm-style lodging isn't appropriate.

- 28) Lesson planning, discipline, dealing with co-teachers who can't speak English. How to survive in Korea. Attitude of Koreans towards foreigners(differing factions)
- 29) Classroom visitations(English AND Korean)
- 30) They need to understand what their responsibility to us is.



<부록 3> 협동수업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견해

Q29-8) Do you have any suggestions or comments on this kind of working with your co-teachers?

- 1) Let the native speaker lead the lesson (co-teachers provide help only when needed.)
- 2) If co-teachers do not speak English they should let me lead the class. some speak all Korean and ignore me.
- 3) I would like more brainstorming with my co-teacher to synchronize objectives.(more discussion, I guess)
- 4) Open communication, feedback and criticism between co-teachers and native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 5) I prefer to teach the class by myself but I still want my co-teacher to be in the classroom to control the class. Also, I strongly suggest that class evaluation or participation should be graded and included in the report card. Students care more about the lesson in which they are evaluated.
- 6) Meet co-teacher sooner than a day before you start working!!!
- 7) They should give us much more advice about what to teach and how to teach.
- 8) I think it is not always ideal-expectations should be set ahead of time and then plans made accordingly.
- 9) Have meetings regularly and have them aware of the concept of 'co' teaching.
- 10) I am lucky if my co-teacher come to class. once this issue is solved I would concern myself further.
- 11) I generally teach every class by myself. Co-teachers need to provide more input into lesson planning other than "OK whatever you want". Otherwise they never participate.
- 12) Be more open about what you want and the goals of class.
- 13) Let us meet them earlier, before the semester begins.
- 14) An open mind and genuine effort to communicate well are most

important.

- 15) Translation of directions for activities. Interruption and explication of confusing points in lecture NEST as conductor, KET roaming 1-on-1 with students.
- 16) It would sure help to communicate coherently if the co-teacher wouldn't speak to me in Korean in the most part. Co-teachers that can speak English. - In some instances respect is an issue-
- 17) Practical workshop. Classroom practices and ideas. Instruction in power point(English version)
- 18) The co-teachers need to be much more cooperative and really want their students to be successful.
- 19) Korean teachers need to understand that native speakers teach communication—we only make the students speak. Korean teachers need to be taught how to co teach.
- 20) Plan the work for a week in advance.
- 21) More input from current public school native teachers, sample lesson plans. More information about how to discipline elementary, middle, high students appropriately. More info about province-specific policy. More info pre-orientation about school assignment & school level (elementary, middle, high)

<부록 4>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조언

[Comments]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you would like to make to improve English education in Korea? Please mention whatever you want to suggest regarding our education policy, school management, teaching strategies, etc.

- 1) Co-teaching only works when teacher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 can't communicate with 90% of my co-teachers. Honestly, they should really not be teaching a language they can't speak. I've had to work in many different situations. Sometimes teachers leave the room when I enter, other times they ignore me and speak Korean 90% and poor Konglish 10%, what works?
- 2) The Korean teacher should stay in the class to "police".
- 3) The English teacher should lead. The book /CD-ROM is in Korean. I make extra materials and games to go along with book lessons.
- 4) If co-teacher does not speak English, teachers can make a plan together for each month. Perhaps a teacher who does speak English can communicate to those who do not.
- 5) Korean teachers can teach to "English" book that's in Korean, when the English teacher is not there.
- 6) English education, based on some recent observation, is executed in a manner similar to...history classes, memorization, repetition. Language is a tool; it should be applied. English should be practiced like math. There should be English exams that test their fluidity of speech in simulated situations like in role plays, speech contest not written in paper. Also, students should be prompted to present more, to speak in public. They should also use English to talk about what they ALREADY know rather than learning new material (like holidays, or lifestyle in other countries) that makes the task of speaking too difficult - stressful even. In general, students may benefit more from having goals and reasons for learning English. One is only ready to do when they think they can do it.
- 7) I'd strongly encourage co-teachers to give constructive criticism to

native English teachers. Many of us are new teachers and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learn how to improve, or to serve the students better.

- 8) I have an unique experience at school because I am Korean. I encourage students not to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to use Konglish if necessary. Since I understand Korean, students try to talk more and in that way. I correct their mistakes and make conversations. Although I never speak Korean to students. I use everything that I have to communicate with them.(body language, dictionary, pictures etc.) In addition,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to find out my personal immigration experience. This is a great topic to start conversation with students. Students often say that they don't want to talk to native speakers because they just assume that native speakers won't understand and therefore, it is a waste of time. Howev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more motivated and eager to interact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lass.
- 9) For EPIK teachers, things should be more fare in terms of work. Many teachers travel 4 or 5 times a week for 30 minutes to an hour yet they HAVE to attend school when they are not teaching and they have to stay at schools that are very fair until 5 p.m. Some teachers get driven and go to schools that are 5-10 minutes away from their home. This is VERY unfair and very frustrating. Teachers who work far from home should be allowed to leave school earlier to compensate for the travel time. Some teachers do not get home until 7 p.m because of how far they travel - this is counter-productive because teachers are too tired to plan lessons and truly enjoy the culture. PLEASE CHANGE THIS - A HAPPY TEACHER IS A GOOD TEACHER.
- 10) I think co-teachers should help us more by telling us more about our students. when we begin teaching, we would like to know about our students' level and interests. If our co-teachers want us to teach about specific things, they should tell us. Native speakers should see smaller classes with more frequency.
- 11) English classroom(not just ETA's class) should be more interactive and not just lecture-only. EFL instructors and co-teachers must work together in classroom management, i.e. noise and behavioral problems.
- 12) I think co-teachers need to work to give constructive criticism to

- foreign teachers while still respecting them as "real" teachers. They should also reinforce the "real" aspect of the teachers to their students.(making the foreign teacher's class count as part of the grade and/or an interview/speaking test would help the students to take the class more seriously and learn more.) More time with fewer students would be ideal, but is often not possible.
- 13) Not enough prep time. Have more orientation sessions / prep sessions for newer and older teachers to mingle, share ideas. More flexibility in schedules.(some policies are/seem pointless.)
- 14) More complete training is needed for native teachers.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in the classroom. I just do what I think is correct. I have no background in education so this could be very wrong. While I would love to plan with my co-teachers, I am intimidated by the gap in knowledge and they are intimidated by gap in English ability.
- 15) Some Korean students need to realize that it is NOT ok to talk in class when others are speaking.(esp. the teacher or other students)
- 16) Have the Korean teachers speak to their students in English for a majority of the class. Try to increase the number of meeting between students and native speaker.(not only ONCE a week). Hav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native speakers asnd co-teachers. Have the Korean teachers create interesting classes instead of only focusing on grammar.
- 17) Despite Dr. Finch's assertion, constant talking, outside the target language,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Expectations and incentives are low, consequences minimal, social promotion inevitable. This 'posses the buck' of minimal competence on down the line, sometimes to higher echelon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Why are promotional banners, billboards, textbooks, etc. riddled with spelling and grammar errors and stilted, awkward expressions. The Government, if indeed it has autonomy, should completely revamp its educational and promotional activities with the full aid and consultation of the well-qualified foreign community. You CAN'T be an international hub and a traditional, even reactionary, isolated culture simultaneously. Fluency in English has little relevance without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Jeju residents view foreigners of all cultures and races.
- 18) Give native teachers the school English book well ahead of time so that they can prepare lesson plans, structuring the lessons to the book.

This is essential for cohesion of classes. Each school should make sure that the equipment i.e. screen projector is well kept and all equipment is working. Teachers should be given materials(e.g. paper for photocopying) without teacher feeling like they have to beg to get something from the school.

- 19) Continue to encourage communication, co-operations, and cultural understanding.
- 20) Have foreign input when developing textbooks/ curriculum!
- 21) It should be less focused on marks and memorization and more about achieving success on a personal level. English should be a pass/ fail concept. No A's, B's, etc. The students who put forth an effort are successful and those that don't are not. Grades are not important, the students taking something meaningful out of their lessons is.
- 22) Improve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of the Korean teachers- so they become more communicate with their classes in English. They become better role models- and their classes go MUCH better.
- 23) Need to offer Korean Language / culture classes for English educators on a regular, ongoing basis. Need to recognize foreign certified teachers as equal professionals - especially experienced teachers.
- 24) A huge problem is that the policy is communicative however the curriculum is exam-focused. There is no incentive of motivation for students to try to do well in the native speaker's class. Native speakers and Korean teachers need to be clear about exactly what they are trying to achieve in the native speaker's class. some Korean teachers don't understand that what the Korean teachers doe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the native speaker does. Korean teachers teach English. The native speaker uses strategies that make the students speak. Discipline is a huge problem in many native speaker's classes. This is because the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curriculum. There is no incentive / motivation.
- 25) The basic problem I feel is that English is presented as an unimportant / optional subject from grade 3. The students can go through English lessons G3 to middle school, learn nothing but always pass. I just gave my students an oral test and was told "even if the students cannot understand - what is your name - give them a 6 or 10." This send the message to the students that English is unimportant and they don't

- have to listen in class and is demotivating to the students who do study. Wrong + this attitude is the reason for poor interest + ability English has to become as important as math, science etc.
- 26)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would be more useful.
- 27) I have several great co-teachers. Unfortunately, one of my main co-teachers has no time to discuss ANYTHING and whatever I come up with is totally wrong. In addition she criticizes me in class and has a totally superior attitude. I have no idea what I should teach because no one will tell me. I wind up preparing different lesson plans for the boys and the girls. It is very frustrating.
- 28) Hire TRAINED teachers from overseas, especially language teacher!! When the Korean or foreign teacher is NOT a strong teacher, then there are problems, such as classroom management, communication etc.
- 29) Give us grading power! This could give students an incentive to actually participate and be made accountable for their time with us and the material we present. Co-teachers must not 'abandon' the native speaker co-teacher without warning. Orientation about what the students SHOULD know for each grade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for us. Korean teachers need to understand that we will not judge them negatively if they tell us "Sorry, I don't know," it's okay for them to admit that they don't have information. As for the EPIK program there need to be more concentration on school and teachers so that the administrators know our problems and successes and can help solve problems and acknowledge what works. You need to actually listen to and help the native teachers. If we become too frustrated and too neglected we, as individuals, will choose find jobs elsewhere. - However, at the same time don't SMOTHER us.
- 30) - Many both English & Korean teachers have good ideas but feel that they will not be listened to, so feel discouraged.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bring ideas forward, both to improve teaching and to encourage the teacher to feel part of the education system.
- People(Korean parents, students, co-teachers) need to see English teachers as real teachers. Western teachers will work hard when they feel they are valued as such and not just a western face.
 - Going to workshops or group idea sessions should be encouraged but plenty of time should be given.

- Bad English teachers should not be tolerated.
- One bad(lazy) teacher reflects on all, and should be warned removed in a proper, professional manner.
- English teachers should be encouraged to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o to remove the 'us' / 'them' viewpoint.
- Sometimes English teachers feel that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ism in management such as not paid severance on time, or required to fill out forms repeatedly, or told one thing for it only to be changed later. This causes burden and resentment which spreads through the foreign teachers. While cultural attributes must be respected management professionalism will force the western teachers to be more professional. Uncertainty causes resentment.
- However, just praising the foreign teachers over the Korean teacher causes tension between foreign and Korean teachers. Don't treat foreign teachers as people who are special, be professional, and equal in praise for both the Korean & English staff.
- Perhaps, a position should be created where the foreign teachers could go with their problems both in/out of school. However this person must have the power to change things or at least to have these problems listened to. They also need to be sympathetic to the western teacher and not associated with the bureaucracy. (perhaps a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a while.)